

# 에너지토피아 建設



尊敬하는 台灣電力 陳 社長님, 레벤슨 博士를 비롯한 内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國內外 原子力界 人士 여러분!

오늘은 8년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古里 原子力 1號機의 商業運轉을 시작한 歷史的인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택해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原子力學會가 合同으로 첫번째 年次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會議에 參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原子力産業은 그동안 짧은 歷史속에서도 참으로 飛躍的인 發展을 이룩했습니다. 10餘年前 모든 것을 남의 손에 依存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原子力産業이 이제는 머지않아 아홉

의 原子力發電所를 稼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核燃料의 國産化까지도 基盤을 構築하려는 段階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이 會議은 單純한 學術的 모임의 性格을 넘어서 그동안의 어려웠던 발자취를 整理하고 또 새로운 出發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期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原子力産業이 開發事業을 위주로 한 依存的 형태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原子爐運轉經驗을 토대로 이의 安全性과 信賴性 그리고 利用率向上과 같은 安定的基盤을 다져나가는 第二段階에 들어 섰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時點에서 이번 會議의 主題를 「原子力發電의 利用率向上과 安全性確保」로 選定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時期에 알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時點에서 確實히 다짐하고 넘어가야 할 일은 우리의 目標을 이같이 單純한 安定的 基盤構築에만 들 것이 아니라 原子力에 對한 安

# 에의 召命意識으로

全한 技術自立을 이룩함으로써 設備의 建設에서부터 運轉과 核燃料供給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을 우리 손으로 處理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란 點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賊存資源이 없는 苦惱를 너무나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國際關係나 石油資源의 有限性을 두고 볼 때 언제 닥쳐올지 모를 앞으로의 에너지파동은 過去와 같은 單純한 시련을 넘어 生存과 直結되는 심각한 局面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에너지 問題의 解決은 이제 이 半島 위에서 現時代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모두의 使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解決하는 가장 確實한 手段은 原子力産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의 主役이라고 할 수 있는 韓國電力은 이러한 時代的 使命感을 통감하고 原子力發電의 技術自立을 통해 어떤 파동이 닥치더라도 에너지 供給에 큰 不便이 없는 社會를 建設하자는 目標아래 올해를 에너지토피아, 즉 에너지 유토피아 建設의 出發點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의大事는 비단 韓國電力에만 局限시킬 問題가 아니라 에너지에 關係하는 우리 모두가 解決해야 할 共同課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가 있으시기를 叮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使命을 뒷받침하는 有益한 자리가 되고, 또 앞으로도 原子力開發途上國들에게 많은 教訓을 줄 수 있는 알찬 모임으로 發展해 나가기를 期待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參加해 주신 世界原子力界의 著名하신 人士 여러분의 繼續的인 指導와 協力이 있으시기를 期待하며 韓國에 머무시는 時間이 즐겁고 有益한 時間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大 會 長      朴 正 基